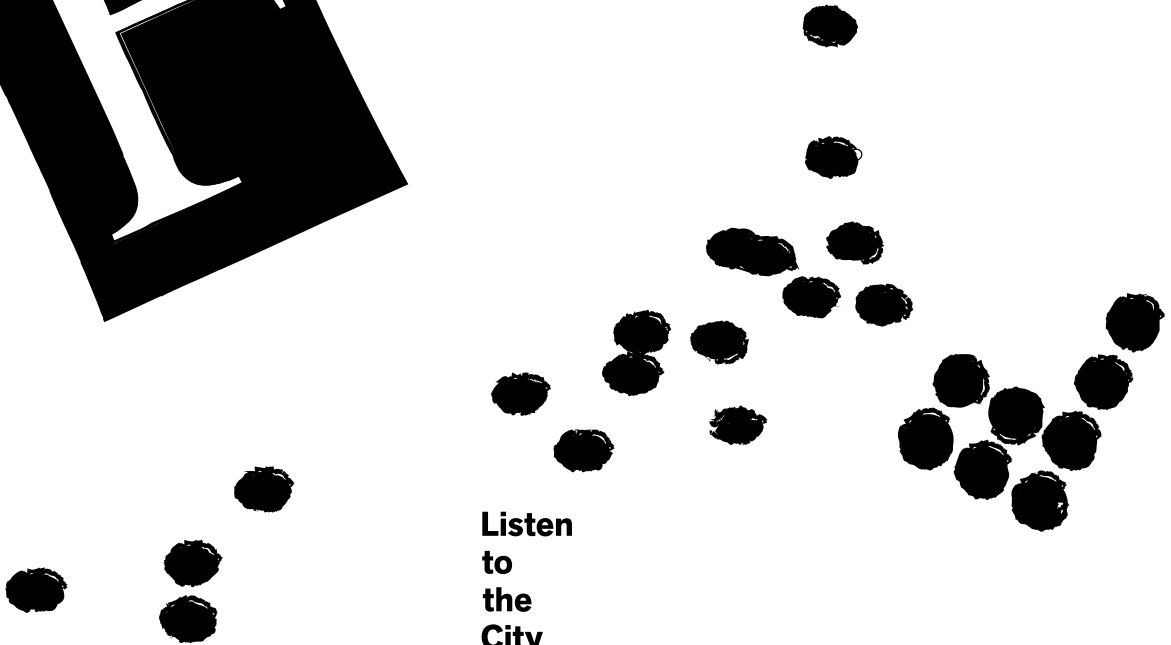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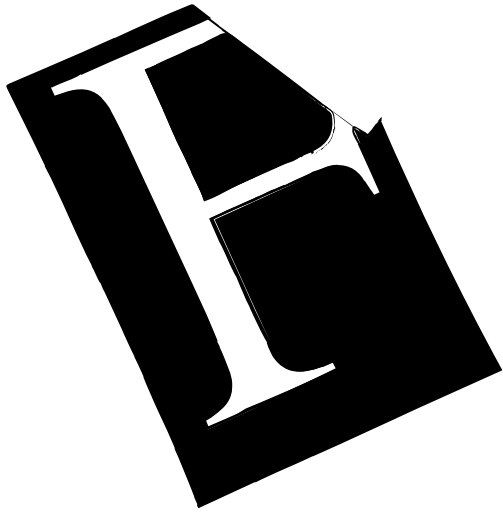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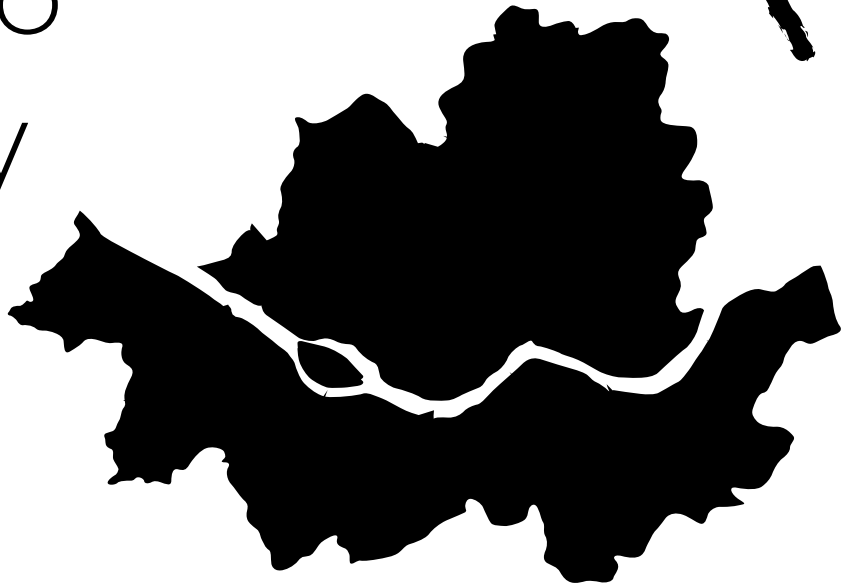




Listen to the City

2009 – 2023 urbanism
ecology
disaster
feminism



**Listen
to
the
City**

리슨투더시티는 2009년 시작되었으며, 미술, 디자인, 건축, 영화, 인문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콜렉티브이다. 콜렉티브의 디렉터 박은선은 미술과 도시계획을 공부하였고, 현옥은 교육운동과 도시운동을 해온 활동가이다. 그 외 윤충근, 백철훈, 정영훈, 권아주, 왕한솔, 정진열 등의 디자이너, 영국 리버풀을 기반으로 Static,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가 권수정, 전선미 등 수많은 창작자들과 협업해왔다.

리슨투더시티는 한국의 과도한 개발과, 환경적 사회적 무책임, 문화적 다양성 파괴에 대한 문제에 의문점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시작했으며 Urban Drawings라는 대안 도시·건축 잡지를 만들어 왔다. 서울의 이면을 산책하는 “서울투어 프로젝트(2010-현재)”,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다루는 프로젝트 “리버풀-서울 도시교환(2010)”, 도시 문제를 영상의 언어로 다루는 “도시 영화제(2011-현재)”, 강과 생명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래 갤러리 프로젝트” 그리고 도시 역사와 존재의 다양성의 파괴에 대해 다루는 창작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다큐멘터리 제작도 계속해오고 있다. <도시목격자>,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장소상실> 등의 영화는 인디다큐페스티벌, 서울인권영화제, 디아스포라 영화제 등에 초청되어 상영한 바 있다.

리슨투더시티의 초점은 ‘미술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는가’가 아니라 ‘사회의 맥락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고, 이에 대해 창의적이고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리슨투더시티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물질이나 형식을 우선시하지 않고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찾기 때문에 물질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방식의 예술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 리슨투더시티는 주제의 맥락에 따라 드로잉, 디자인, 영상, 연구, 출판, 세미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창작하며 공익소송과 법 개정 활동도 하고 있다.

이 리플렛은 리슨투더시티의 2023년 발간된 미학 실천의 일부를 간추렸다. 전체 프로젝트 및 비평문은 책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



문수스님을 위한 기념비, 낙동강 구미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퍼포먼스, 사진: 소원영, 2011
 “Monument for Buddhist Monk Moonsoo”, performance art piece that took place at the Nakdong River Gumi Reservoir during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hoto: Wongyoung So, 2011



내성천 송리원, 사진: 리슨투더시티, 디지털프린트, 2014
 Naeseongcheon Songliwon, Photo: Listen to the City, Digital Print, 2014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장애 포괄 재난대비 포스터, 그림 및 디자인: 박은선, 2018
 Leave no one behind; Disability inclusive disaster preparedness poster,
 Illustration and design: Eunseon Park, 2018



이 리플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출판권은 리스너투더시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논문, 책 출판 등에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무단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